

##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조 성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1988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게재된 총 23편의 논문들을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참고문헌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회지 게재논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 면에서는 성격특성과 적응연구, 성과연구, 개관연구, 진로/직성연구, 도구 및 검사개발연구의 순서로 게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도구와 관련해서는 연구당 평균 3.3개의 도구가 사용되었고, 도구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거나 채점 및 점수해석 방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각기 26.2%와 2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23.4명의 피험자들을 연구당 45.8%와 54.2%의 남녀 비율로 46명 가량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한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병리가 없는 중·고 대학생 피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험자 선발에 관한 정보 제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 계열의 통계분석 방법이 적용된 경우가 전체의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인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문헌보다 9년 정도 더 지난 외국 문헌을 두 배 이상 더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회지 게재논문들이 연구내용이나 논문의 작성 방법 등의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 그리고 상담연구자 및 학회지 편집자들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내용분석,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조성호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조 성 호, 경기도 부천시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340-3278 E-mail : chopsy@catholic.ac.kr

1946년 2월 7인의 한국인 심리학자들에 의해 창립된 조선심리학회(1948년 11월 27일 한국심리학회로 명칭을 바꾸어 재출범하였다(차재호, 염태호, 한규석, 1996)). 그 후 1964년에 이르러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임상심리분과회가 설치되었고, 이 분과회는 1974년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6년에는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회의 분리안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함으로써 1987년부터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가 독립적인 분과학회로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1996년 10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로 학회 명칭을 바꿈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이혜성, 1996).

독자적인 분과학회로 분리 출범한 이듬해인 1988년부터 연 1권씩 발간되기 시작한 “상담과 심리치료”는 1989년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6년의 분과학회 명칭 변경을 다소 뒤늦게 반영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상담과 임상분과의 분리 이전의 분과학회지 “임상심리학보”와 “임상 및 상담심리학보” 시절을 제외한다면, 현 학회지는 1992년 미발행된 한 해를 제외하고 올 해로서 통KS 15권의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15년의 역사를 지니게 된 셈이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 학회지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회지 명칭도 몇 차례 변경되었고, 1999년까지 연 1호씩 발간되던 것이 2000년에는 연 2호, 2001년에는 연 3호, 그리고 2002년부터는 연 4호가 발간되는 등 양적 팽창 또한 거듭되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 추세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회원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학회지는 해당 학문의 공식적 학

술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학문의 현 상태(status in quo)는 그 학문의 전문 종사자들의 모임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가장 잘 반영된다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상담심리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상담심리학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이래로(이혜성, 1996),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한국에서의 상담심리학의 발달 궤적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의 한국 상담심리학의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Brown(1969)이 지적했듯이, 각 학문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p. 263). 이러한 성찰 작업이 바로 급격한 양적 팽창세에 진입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필요한 시점이다.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은 미국 상담심리학의 경우에는 드문 일이 아니다.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JCP)에는 JCP에 수록된 논문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Munley(1974)는 JCP 1~19권에 수록된 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한 바 있고, 그에 뒤이어 Buboltz, Miller, 및 Williams(1999)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26년에 걸쳐 발간된 20~45권에 수록된 총 2,027개의 논문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상담심리학의 특정 주제에 관한 개관 논문을

제외하고도, 많은 연구자들이 JCP의 출판 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예: Foreman, 1966; Goodstein, 1963; Heesacker, Heppner, & Rogers, 1982; Hill, Nutt, & Jackson, 1994; Robinson, 1970).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대로 15년간 발간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내용과 주요 구성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학회지 및 학회지 게재 논문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연구내용, 사용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참고문헌 등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특징들을 기술하고, 경향성을 확인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학회지 게재 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JCP 수록 논문들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상담심리학 자체의 역사와 발전 과정, 사회문화적 배경, 인적 자원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학문 환경 등이 현격하게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 상당한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상담심리학의 연구성과를 대표하는 학회지 게재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현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상담심리학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관한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집약·분석·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또한 15년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세부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석·정리하여 제시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에서는 15년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주요 연구내용과 논문의

주요 구성요소라 볼 수 있는 측정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참고문헌 등의 형식적 사항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학회지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심사과정에서 주로 행해지는 연구문제 또는 가설의 적절성과 중요성, 가설검증 과정의 타당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개별 논문의 전반적인 질(quality)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평가나 판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 및 평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또 다른 연구의 몫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회지가 미발간된 1991년을 제외하고, 1988년(1권 1호)부터 2003년 6월(15권 2호)까지 15년에 걸쳐 발간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수록된 총 238편의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평정자

4명의 상담심리학 전공 1년차 석사과정생들(여, 평균 26.7세)과 1명의 상담심리학 전공 5년차 박사과정생이자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 38세)가 본 연구의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자로 참가하였다.

### 평정 절차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평정 및 평가는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는 평정자 훈련 단

계로서, 5명의 평정자들은 연구자가 작성한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 지침서”를 제시받고, 개별적인 숙지 작업과 더불어 집단적으로 각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연구자는 각 평정 항목 및 항목별 분류 유목들을 설명하고, 5개의 학회지 게재 논문을 예로 들어 시험 평정 및 평가 훈련을 실시하였다. 서로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불일치를 줄여나갔으며, 더 이상 중요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부가적인 학회지 게재논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4명의 석사과정 평정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 1988년에 발간된 제 1권 1호에서부터 2003년 6월에 발간된 제 15권 2호에 이르기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238개의 논문들을 반으로 나누어 각 조에 배분하였고, 각 조마다 할당된 논문들을 평가하게 하였다. 각 조에 배분된 논문들에 대한 평가는 같은 조에 소속된 2명의 평정자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진행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238편의 학회지 게재논문들 각각은 2명의 서로 독립적인 석사과정 평정자들에 의해 평정 및 평가된 셈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38개의 학회지 게재논문 각각에 대해 2명의 석사과정 평정자에 의해 작성된 2개의 독립적인 평정 및 평가 결과서를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생이자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제시하고, 평정 및 평가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평정 및 평가 결과 확정 단계로서, 각 논문에 대해 3명의 평정자(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1명)의 평정 및 평가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평정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였고, 3명의 평정 및 평가 결과 중 석사과정 평정

자 1명과 박사과정 평정자 1명이 서로 일치하고 나머지 석사과정 1명의 평정결과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박사과정 평정자가 포함된 평정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로 확정하였다. 아주 드물게 3명의 평정 결과가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와 석사과정생 2명의 평정 결과와 박사과정생 1명의 평정 결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자가 직접 검토하여 평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38개의 학회지 게재논문들에 대한 평정 및 평가 자료가 수집완료되었다.

## 평정 도구

###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 지침서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작한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각각의 평정 및 평가 항목과 항목별 분류 유목, 평정 및 평가시 주요 기준과 지침, 그리고 주요 용어들에 대한 해설 등이 담겨 있다.

평정 지침서에 기재된 평정 및 평가 항목들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논문의 기초사항들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연구의 내용 유형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각 논문에 사용된 측정도구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는 부분이며, 네 번째는 피험자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논문에 제시된 통계분석 방법,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역은 참고문헌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영역들에 포함된 항목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질적 판단이나 추론이 불필요하여 기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항

목들(예: 측정도구 수, 피험자 수, 통계분석 방법, 및 참고문헌 관련 사항 등)이고, 두 번째는 평정자의 질적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되는 항목들(예: 연구내용 유형 분류, 측정도구 형식 분류, 피험자 선발 정보의 충실도에 대한 판단 등)이다. 기계적 확인 항목들의 경우는 관련 정보 확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지침서에 담아 제공하였고, 질적 판단 및 평가 항목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평가 및 판단 기준과 지침을 지침서에 제시하였다.

**논문 기초사항 기록:** 논문 제목, 저자 및 저자 소속기관, 주제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연구내용 분류:** Buboltz, Miller, 및 Williams (1999)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수록된 2,027개의 논문들의 연구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분류 유목을 사용하였다. 이 분류 유목은 각 논문의 연구내용을 상호 배타적인 14개의 유목들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상담심리학 연구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2개의 유목(예: 소수민족연구 유목과 기타 유목)을 제외하였고, 학업성취연구 유목과 직업행동연구 유목을 서로 합쳐 진로 및 적성연구 유목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에다 Buboltz 등(1999)의 원래 유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례연구/조사연구 유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12가지 분류 유목을 사용하였다. Buboltz 등(1999)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참고삼아 각각의 분류 유목들에 대해 정의 및 분류기준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성과연구: 상담이나 특정한 개입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

2) 상담과정연구: 상담성과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과정에 관한 자료가 제시·분석된 연구;

3)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상담과정과 성과를 함께 연계시키는 연구.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함;

4)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연구: 상담자 훈련 및 교육,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 상담자 발달 및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

5)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지각/태도연구: 상담이나 정신건강 종사자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대, 지각 등을 다룬 연구;

6)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상담기관 내담자, 정신과 환자, 특수 집단(예: 여성, 비행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및 일반인들의 성격 및 심리특성, 성장 및 발달, 스트레스, 적응 등에 관한 연구;

7) 진로 및 적성연구: 학업성취, 진로, 적성, 직업선택 등에 관한 연구;

8)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심리측정 도구나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에 일차적인 초점이 두어지는 연구. 개발된 도구의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다른 성격특성 측정도구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는 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도구개발에 있기 때문에 이 유목으로 분류됨;

9) 연구방법론연구: 상담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새롭거나 독창적인 방법론이나 통계분석 방법 또는 유용한 분석 기법들을 다루는 연구;

10) 특정 주제 개관연구: 상담심리학의 특정 주제에 관해 축적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집약·분석·정리하는 데 초점 맞춰진 연구;

11) 이론개발연구: 논문의 주요 관심이 상담심리학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 틀을 개발하거나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초점 맞춰진 연구. 이론개발연구에서도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개관이 행해질 수 있으나, 단순한 기존 연구결과들의 집약·정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 개념 틀에 대한 제시가 반드시 부가되어야 함.

12)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단일 및 소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나 상담심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조사자료를 제시한 연구. 사례연구는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을 수 있으나, 상담사례 자체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예: 흔히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특성을 지니는 개인 및 집단상담 내담자들을 포함) 그 사례에 대한 기술적 자료(descriptive data)의 제시 자체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 유목에 포함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유목(예: 상담과정연구,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등)으로 분류됨.

**측정도구 평가:** 논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수, 형식, 심리측정 정보 제시 형태, 채점 및 점수해석 정보 제시 여부 등을 확인 또는 평가하게 하였다. 측정도구의 형식에 대해서는 논문에 사용된 도구들이 각기 명명척도(nominal scale), 서열척도(ordinal scale), 등간척도(interval scale), 비율척도(ratio scale)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분류토록 하였다. 심리측정 정보 제시 형태와 관련해서는 각 논문들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요인분석, 및 준거관련 타당도(예: 공존타당도, 예언타당도 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채점 및 점수해석 방식에 대한 정보 제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토록 하였다.

**피험자 관련 정보 평가:** 각 논문에 포함된 피험자 수, 성별, 연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

록하게 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연령 형태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 성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험자의 지위 특성에 대해서도 확인 및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논문에 포함된 피험자들이 일반피험자, 상담기관 내담자, 정신과 외래 또는 입원환자, 상담자 또는 치료자, 비행청소년, 기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행해졌다. 마지막으로 피험자 선발 정보(예: 피험자 선발방법, 기준 및 절차 등)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논문 독자들이 논문에 제시된 정보만 가지고도 피험자 선발과정 및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지, 아니면 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 등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하였다.

**통계분석방법 유형 기록:** 각 논문에 적용된 통계분석 방법의 유형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유형 구분은 변량분석계열 분석방법(예: t-검증, 변량분석, 다변량분석 등), 회귀분석계열 분석방법(예: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예: path analysis, 공변량구조분석, LISREL/AMOS 등 적용), 비모수적 분석(예: Kruscal-Wallis 검증,  $\chi^2$ 검증 등)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행해졌다.

**참고문헌 관련 사항 기록:** 각 논문에서 인용된 국내 및 외국 참고문헌들의 수, 국내 및 외국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간 연도 등을 계산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결 과

학회지 발행 현황 및 연도별 게재 논문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는 1988년 제 1권이 발행되었으며, 1991년에 미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1999년까지 매년마다 한 번씩 발행되었고, 2000년에는 두 번, 2001년에는 3번, 그리고 2002년부터는 4번씩 발행되고 있다. 1988년

에 발행된 제 1권 1호부터 2003년 6월 발행된 제 15권 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의 총 수는 238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1988~1995년까지는 매 년 한 자리 수 이하의 논문들이 게재된 반면, 1996~1999년까지는 한 해를 제외한다면 연간 게재 논문수가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고, 연간 두 번 이상씩 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는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표 1.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도별 연구내용

발간 연도	연구내용 유형												계
	성과	과정	과정/ 성과	상담자	상담 서비스	성격/ 적응	진료/ 적성	검사 개발	연구 방법론	개관	이론 개발	사례/ 조사	
1988	-	1(20.0)	2(40.0)	-	-	1(20.0)	-	1(20.0)	-	-	-	-	5
1989	1(14.3) <sup>1)</sup>	-	2(28.6)	-	-	2(28.6)	-	-	-	-	1(14.3)	1(14.3)	7
1990	-	-	-	1(16.7)	-	-	-	1(16.7)	-	3(50.0)	1(16.7)	-	6
1992 <sup>2)</sup>	-	1(20.0)	-	-	-	2(40.0)	-	-	-	1(20.0)	-	1(20.0)	5
1993	2(28.6)	1(14.3)	-	1(14.3)	-	1(14.3)	-	1(14.3)	-	1(14.3)	-	-	7
1994	1(16.7)	2(33.3)	-	-	-	1(16.7)	-	-	-	2(33.3)	-	-	6
1995	-	2(28.6)	-	-	-	1(14.3)	1(14.3)	-	-	3(42.9)	-	-	7
1996	1(9.1)	1(9.1)	-	-	1(9.1)	2(18.2)	-	1(9.1)	1(9.1)	4(36.4)	-	-	11
1997	5(26.3)	3(15.8)	-	-	-	3(15.8)	4(21.1)	2(10.5)	-	2(10.5)	-	-	19
1998	1(7.1)	1(7.1)	2(14.3)	3(21.4)	-	2(14.3)	3(21.4)	-	-	2(14.3)	-	-	14
1999	-	1(12.5)	-	1(12.5)	-	3(37.5)	1(12.5)	-	-	-	2(25.0)	-	8
2000 <sup>3)</sup>	8(30.8)	-	1(3.8)	2(7.7)	2(7.7)	2(7.7)	5(19.2)	3(11.5)	-	1(3.8)	1(3.8)	1(3.8)	26
2001 <sup>4)</sup>	5(12.8)	5(12.8)	1(2.6)	1(2.6)	3(7.7)	12(30.8)	3(7.7)	3(7.7)	-	3(7.7)	2(5.1)	1(2.6)	39
2002 <sup>5)</sup>	7(12.3)	3(5.3)	3(5.3)	9(15.8)	3(5.3)	12(21.1)	5(8.8)	8(14.0)	-	3(5.3)	2(3.5)	2(3.5)	57
2003 <sup>6)</sup>	3(14.3)	1(4.8)	-	2(9.5)	-	8(38.1)	2(9.5)	3(14.3)	-	-	1(4.8)	1(4.8)	21
계	34(14.3)	22(9.2)	11(4.6)	20(8.4)	9(3.8)	52(21.8)	24(10.1)	23(9.7)	1(0.4)	25(10.5)	10(4.2)	7(2.9)	238

1) 괄호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2) 1991년의 경우 학회지가 발간되지 않았음.

3)~5) 2000년의 경우 연 2호, 2001년의 경우 연 3호, 2002년부터 연 4호가 발간됨.

6) 2003년(제15권)의 경우 6월 현재 발간된 2호까지 수록된 논문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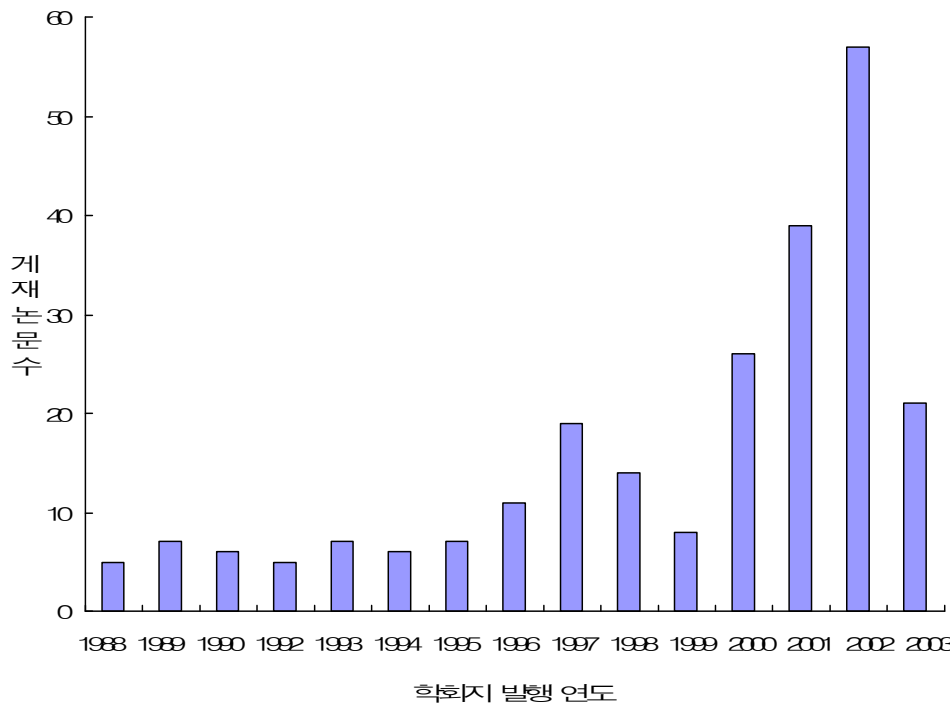


그림 1. 학회지 발행 연도별 게재논문 수

#### 학회지 게재 논문 연구내용 분석 결과

제 1권부터 제 15권 2호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총 238편의 논문들을 방법 부분에 제시된 연구내용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12가지 연구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각 논문은 이 12가지의 연구내용들 중 어느 한가지 유목으로만 분류된다. 학회지 게재 논문들의 연구내용 유형별 특징을 표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12가지의 연구내용 유형 중 제일 많은 게재 빈도를 차지한 연구내용은 총 238개의 논문 중 52개로 전체의 21.8%를 차지한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4편이 게재된 상담성과연구(14.3%), 25편이 게재된 특정 주제 개관연구(10.5%),

24편이 게재된 진로/적성연구(10.1%), 23편이 게재된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9.7%), 22편이 게재된 상담과정연구(9.2%), 20편이 게재된 상담자 특성 및 훈련/수퍼비전연구(8.4%)의 순서로 게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담과정 및 성과 통합연구(11편, 4.6%), 이론개발연구(10편, 4.2%),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연구(9편, 3.8%), 사례연구 또는 조사연구(7편, 2.9%),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1편, 0.4%) 등은 전체 238개의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5% 이하로 게재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8개의 논문 중 게재 비율이 10%를 넘는 세 가지 주요 연구내용의 연도별 게재 비율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의 연도별 게재 비중은 전반적으로 “고(1988~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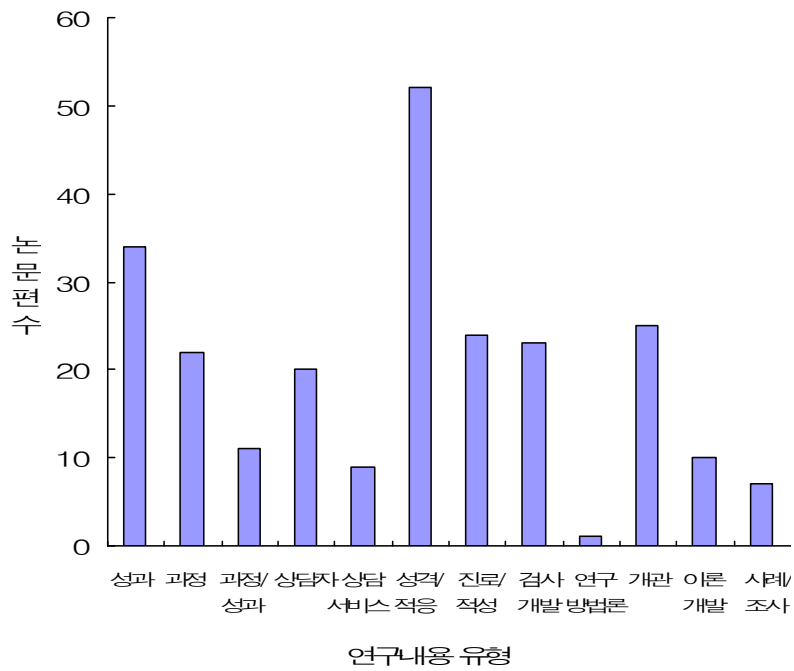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내용 유형별 논문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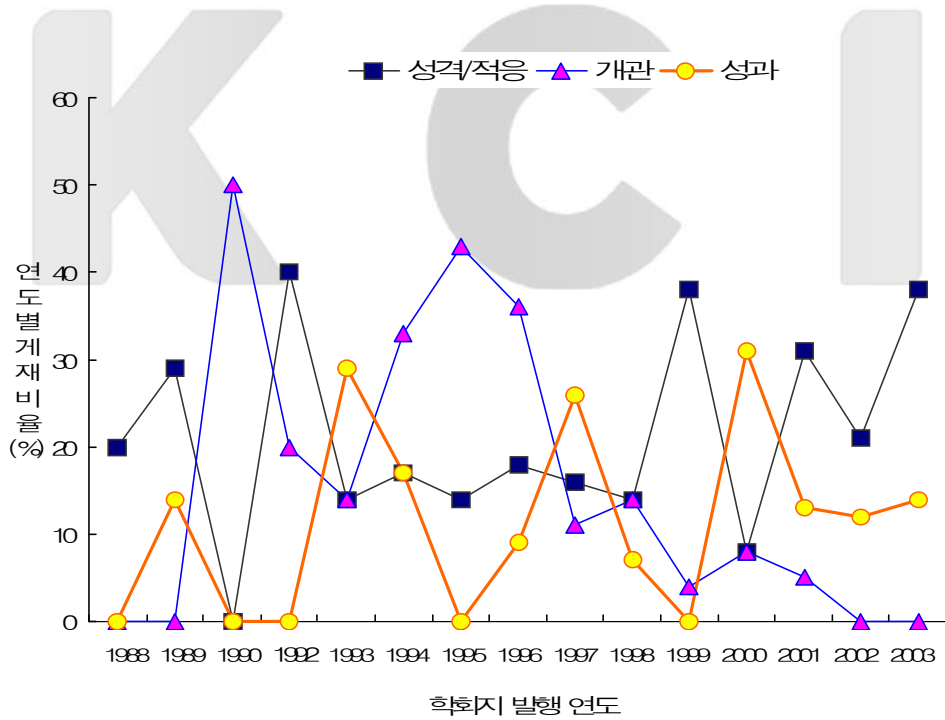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연구내용의 연도별 게재비율 변화

→저(1993~1998)→고(1999~2003)”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주제 개관연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뚜렷한 “고(1990~1996)→저(1997~2003)”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담성과연구의 경우에는 약 2~3년의 주기를 두고 “고←→저”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 게재 논문 수가 연 20편을 넘는 2000년 이후의 최근 몇 년만을 따로 떼어내 분석하자면,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특정 주제 개관연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상담성과연구는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와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JCP)에 수록된 논문들의 연구내용 유형별 게재비율을 비교하여 표 2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JCP 논문의 경우 상담과정 및 성과 통합연구들이 전체 논문의 25%에 해당하여 게재율이 가장 높은 반면, 우리 학회지의 경우에는 4.6%에 불과하여 21.4%의 현격한 게재율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의 경우 우리 학회지는 21.8%인데 반해, JCP는 7%에 불과하여 이 역시 14.8%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구와 개관연구의 경우에는 우리 학회지가 각기 14.3%와 10.5%인데 반해, JCP는 6%와 2%여서 각기 8.3%와 8.5%의 게재율 차이를 나타냈다.

이외에 과정연구, 상담자연구, 상담서비스연구, 진로/적성연구, 검사개발연구, 이론개발연구는 우리 학회지와 JCP의 논문 게재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방법론 연구는 비록 게재율 차이가 3.6%로 미미하기는 하지만, 우리 학회지의 경우에는 1편(0.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법론 분야의 연구들은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 학회지는 JCP에 비해 성격/적용연구, 성과연구, 개관연구의 게재비율이 높은 반면, 과정/성과연구와 과정연구의 게재비율은 낮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학회지 게재논문 측정 도구 분석 결과

238개의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어떤 형태로는 측정을 위해 경험적 도구(혹은 척도)를 사용하였

표 2.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와 JCP 논문들의 연구내용별 게재율 비교(%)<sup>1)</sup>

발간 연도	연구내용 유형												계
	성과	과정	과정/ 성과	상담자	상담 서비스	성격/ 적용	진로/ 적성	검사 개발	연구 방법론	개관	이론 개발	기타 <sup>3)</sup>	
학회지	14.3	9.2	4.6	8.4	3.8	21.8	10.1	9.7	0.4	10.5	4.2	2.9	100.0
JCP	6	13	25	6	4	7	11 <sup>2)</sup>	9	4	2	4	8	100.0

1)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는 15년간 게재된 238편, JCP는 24년간 게재된 2,02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게재율을 계산하였음. JCP 자료는 Buboltz, Miller, 및 Williams(1999)에서 인용하였음.

2) Buboltz 등(1999)은 학업성취연구 유목(2%)과 직업행동연구 유목(9%)을 분리하였으나, 여기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와 비교를 위해 이 두 유목을 진로/적성 유목으로 통합하여 게재율을 제시하였음.

3) 상호 비교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의 경우에는 사례 조사연구 유목을, JCP의 경우에는 소수민족연구 유목과 기타 유목을 기타 유목에 포함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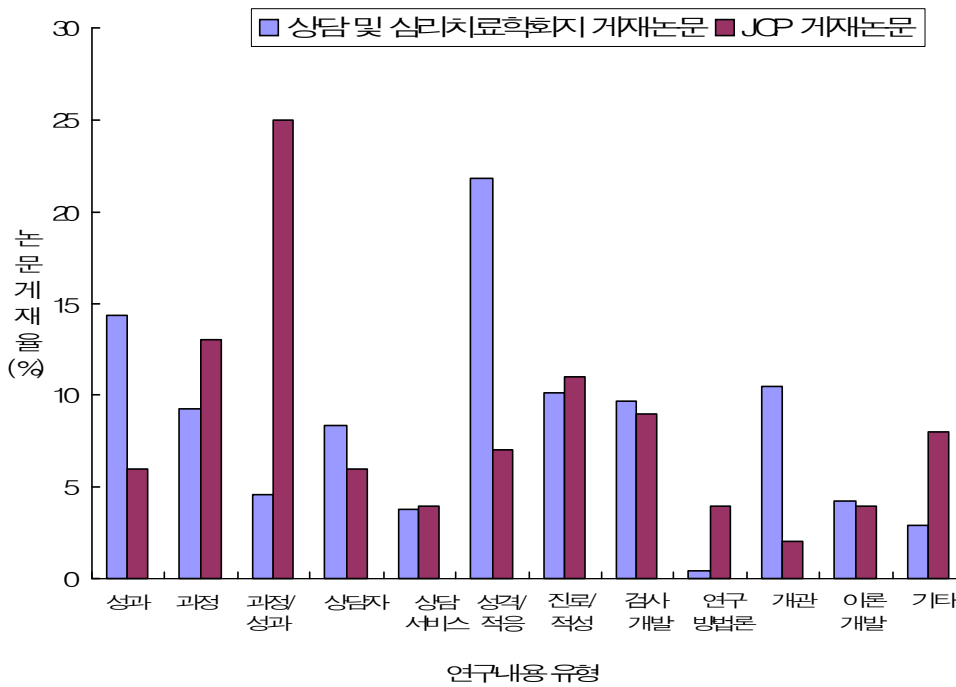


그림 4.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와 JCP 논문들의 연구내용별 게재율 비교

다고 보고한 논문은 모두 18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187개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총 수는 614개로 논문당 평균 3.3개의 도구가 사용되었다. 사용도구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등간척도가 562개(91.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명명척도는 49개(8.0%)였고, 서열척도는 3개(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187개의 논문들에서 사용 도구에 관한 심리측정 속성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정보만 제시한 경우는 전체 614개의 도구 중 342개(55.7%)였고, 신뢰도와 더불어 요인정보를 함께 제시한 경우는 74개(12.1%)였으며, 신뢰도와 더불어 준거관련 타당도(예: 공준타당도, 예언타당도 등)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15개(2.4%), 그리고 신뢰도와 준거관련 타당도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요인정보만 제시한 경우는 18개(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 가지 정보 모두를 제시한 경우는 4

표 3. 척도 사용 논문의 측정 도구 사용 현황

도구사용 논문수 <sup>1)</sup>	총도구수	도구 유형별 수(%)			논문당 도구수 평균(SD)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187	614	49(8.0)	3(0.5)	562(91.5)	3.3 (2.09)

1)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논문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음.

표 4. 심리측정 속성 정보 제시 형태별 도구(척도) 수<sup>1)</sup>

심리측정 정보 제시 형태	도구 수(%)	논문당 도구 수(SD)
신뢰도 제시	342(55.7)	1.83(2.00)
요인정보 제시	18(2.9)	0.10(0.42)
신뢰도+요인정보 제시	74(12.1)	0.40(0.81)
신뢰도+준거타당도 제시	15(2.4)	0.08(0.45)
신뢰도+요인정보+준거타당도 제시	4(0.7)	0.02(0.15)
전혀 제시하지 않음	161(26.2)	0.86(1.43)
계	614(100.0)	3.3

1)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187개의 논문들에 제시된 총 614개의 도구를 분석 대상으로 함.

개(0.7%)에 불과했고, 이와는 정 반대로 세 가지 정보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161개(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사용된 측정 도구에 관한 심리측정 속성 정보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제시한 논문은 614개의 측정 도구 중 15.2%인 93개에 불과했고, 전체의 58.6%인 360개의 측정 도구에서는 신뢰도와 요인정보 중 한 가지의 심리측정 정보만 제시된 셈으로,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심리측정 속성 정보 제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187개의 논문들에서 도구의 채점 방식과 점수(또는 점수 의미) 해석 방식에 관한 정보 제시의 충실도를 분석하였다. 표 5를 보면, 도구의 채점 방식과

점수 해석 방식 모두를 충실하게 제시한 경우는 614개의 사용 도구 중 264개로 절반 이하였으며(43.0%), 203개(33.1%)의 도구는 채점 방식과 점수 해석 방식 둘 중 하나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용도구를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리고 도구의 적용 결과 산출된 점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147개에 이르러 전체의 2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 게재논문 피험자 분석 결과

238개의 전체 논문 중 피험자 수에 관한 정보

표 5. 채점 및 점수해석 정보 제시 형태별 도구(척도) 수<sup>1)</sup>

채점 및 점수해석 정보 제시 형태	도구 수(%)	논문당 도구 수(SD)
채점방식 + 점수해석 방식 제시	264(43.0)	1.41(1.50)
둘 중 하나만 제시	203(33.1)	1.09(1.42)
전혀 제시하지 않음	147(23.9)	0.79(1.61)
계	614(100.0)	3.3

1)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187개의 논문들에 제시된 총 614개의 도구를 분석 대상으로 함.

표 6. 피험자 인구특성 정보 제시 형태별 논문수, 평균(SD), 및 범위

제시된 피험자 정보	논문 수 <sup>1)</sup>	평균(SD)	범위
전체 피험자 수	201	661.95명(2918.92)	1~40,000명
	200 <sup>2)</sup>	465.26명(864.73)	1~6,538명
남자 피험자 수	156 <sup>3)</sup>	213.78명(492.31)	0~4,311명
여자 피험자 수	156 <sup>4)</sup>	253.28명(368.76)	0~2,227명
피험자 평균 연령	81	23.37세(7.64)	8~43세

1) 전체 피험자 수, 남녀 성비, 및 피험자 평균 연령 모두를 제시한 논문 수는 74개임.

2) 전체 피험자 수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 20개의 논문 중 정확한 피험자 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피험자 수가 대략 40,000명에 이른다고 밝힌 극단적인 1개의 논문을 뺀 논문 수임.

3), 4) 남자 또는 여자 피험자만 사용한 논문은 각기 136개와 148개임.

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201개였다. 이 논문들에서는 최소 1명에서 최대 40,000명에 이르는 평균 661.95명의 피험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논문들 중 정확한 피험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극단적으로 많은 피험자 수인 대략 40,000명 정도의 피험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힌 한 개의 논문을 제외한 200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논문당 평균 465명(범위: 1~6,538명)이 피험자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성별과 연령 등 피험자 인구특성 정보를 제시한 논문들에 관한 자료 또한 표 6에 제시하였는데, 남자 및 여자 피험자 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56개의 논문들에서 남자는 평균 213.78명, 여자는 평균 253.28명이 연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험자의 평균 연령을 제시한 81개의 논문들에서 사용된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23.3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201개의 논문들 중에서 피험자 선발 방법에 관한 정보 제시의 충실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피험자 선발 정보가 명확하거나 충실하여 독자들이 피험자가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

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103개(51.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고,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된 경우가 72개로 35.8%, 그리고 피험자 선발 정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논문도 전체의 12.9%에 이르는 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로든 피험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총 201개의 논문들에서 피험자의 연령 형태와 지위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표 8과 9에 제시하였다. 먼저 피험자의 연령 형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연령 형태 피험자의 중복 사용을 별도 논문으로 간주하여 산출된 전체 284개 논문들 중에서 39.79%에 해당하는 113개 논문이 피험자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사용

표 7. 피험자 선발 정보 제시 논문 수<sup>1)</sup>

피험자 선발 정보 제시의 충실성	논문 수(%)
명확 또는 충분 제시	103(51.2)
불명확 또는 불충분 제시	72(35.8)
전혀 제시하지 않음	26(12.9)
계	201(100.0)

1) 피험자 관련 정보를 제시한 20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함.

표 8. 피험자 연령 형태별 논문 수<sup>1)</sup>

연령 형태	아동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대학(원)생	성인	계 <sup>2)</sup>
논문 수(%)	3(1.06)	15(5.28)	31(10.92)	45(15.85)	113(39.79)	77(27.11)	284(100.0)

1) 피험자 관련 정보를 제시한 201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한 논문에 두 연령 형태 이상의 피험자를 사용했을 경우 각기 별도로 논문수 계산에 포함시킴.

표 9. 피험자 지위 특성별 논문 수<sup>1)</sup>

지위 특성	일반피험자	상담내담자	정신과환자	상담자	비행청소년	기타	계 <sup>2)</sup>
논문 수(%)	142(59.92)	27(11.39)	6(2.53)	45(18.99)	9(3.80)	8(3.38)	237(100.0)

1) 피험자 관련 정보를 제시한 201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한 논문에 두 지위 특성 이상의 피험자를 사용했을 경우 각기 별도로 논문수 계산에 포함시킴.

하였고, 27.11%인 77개 논문에서는 성인 피험자를 사용하였으며, 45개(15.85%) 및 31개(10.92%) 논문에서는 각기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피험자로 사용하였고, 초등학생과 아동의 경우는 각기 15개(5.28%)와 3개(1.06) 논문에서 피험자로 사용되었다(그림 5 참조).

서로 다른 지위 특성을 지니는 피험자의 중복 사용을 별도 논문으로 간주하여 산출된 전체 237개 논문들 중에서 전체의 59.92%에 이르는

142개 논문들에서 특별한 지위 특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 일반 피험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담기관을 내방한 내담자를 피험자로 사용한 논문은 27개(11.39%)였고, 상담자를 피험자로 사용한 논문은 45개(1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재소자를 포함한 비행청소년을 피험자로 사용한 논문은 9개(3.80%), 정신과 외래 또는 입원환자를 피험자로 사용한 논문은 6개(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속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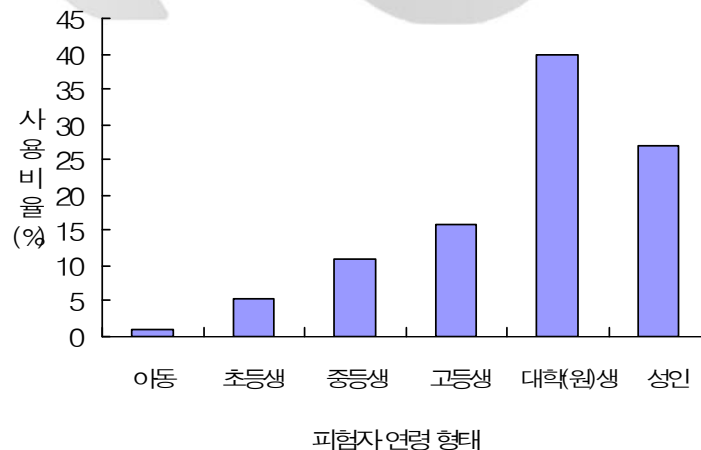


그림 5. 피험자 연령 형태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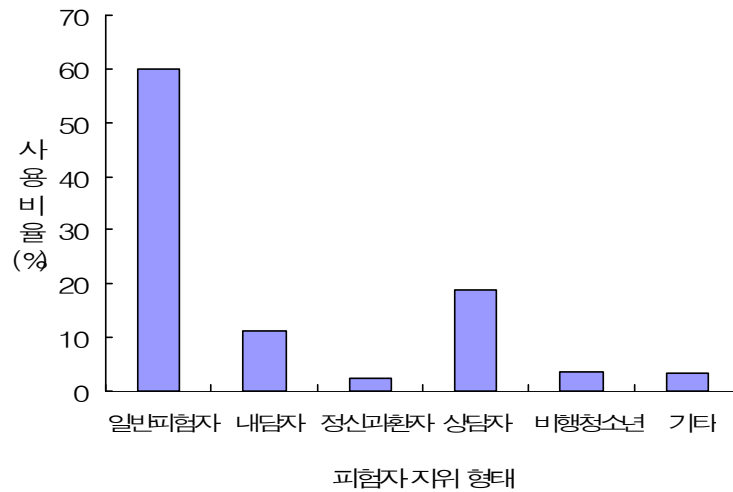


그림 6. 피험자 지위 형태별 사용 비율

는 나머지 피험자들은 교도소 재소자(1개), 신체 장애인(1개), 정신지체자(1개), 시설수용자(1개) 등이었다(그림 6 참조).

#### 학회지 게재 논문 통계분석 방법 분석 결과

총 238개의 논문 중에서 특별한 통계분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43개의 논문(예: 연구방법론, 개관, 이론개발, 및 사례 또는 조사연구 등)을 제외한 195개의 논문들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분석

방법을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통계분석 방법을 중복 사용한 논문들을 별도 논문으로 간주하여 산출된 전체 389개 논문들 중에서 t-검증, 변량분석(ANOVA), 다변량분석(MANOVA) 등의 변량분석 계열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172개로 전체의 44.22%였으며, 상관분석(correlational analysis)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의 회귀분석 계열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158개로 40.62%였다(그림 7 참조).

표 10. 통계분석 방법별 논문 수<sup>1)</sup>

통계분석 방법	변량분석 계열 <sup>2)</sup>	회귀분석 계열 <sup>3)</sup>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변인간 인과분석 <sup>4)</sup>	비모수적 분석	계 <sup>5)</sup>
논문 수(%)	172(44.22)	158(40.62)	32(8.23)	3(0.77)	4(1.03)	6(1.54)	14(3.60)	389(100.0)

1) 총 238개의 논문중 특별한 통계분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구방법론 (1개), 개관 (2개), 이론개발 (1개), 및 사례/조사(7개) 연구 등 43개의 논문을 제외한 195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변량분석 계열은 t-검증, 변량분석, 다변량분석 등을 포함함.

3) 회귀분석 계열은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포함함.

4)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은 경로분석, 공변량구조분석, LISREL/AMOS 등을 사용한 분석을 포함함.

5)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각기 별도로 논문수 계산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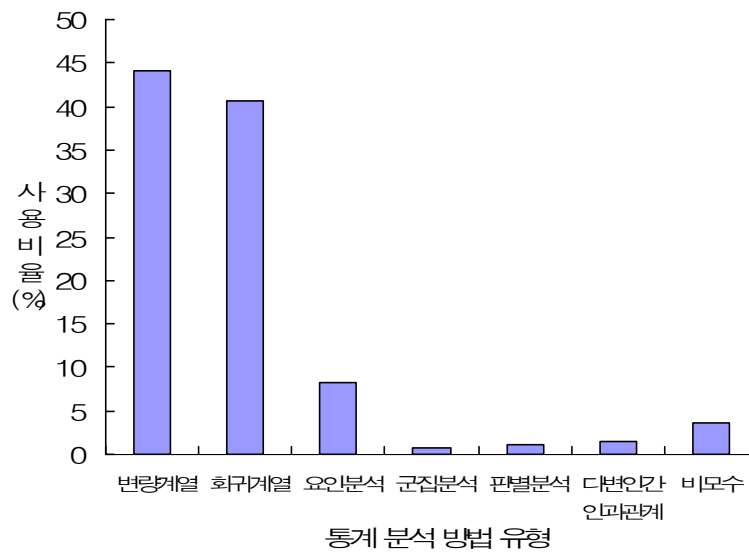


그림 7. 통계분석 방법별 사용 비율

반면에, 요인분석, 군집분석, 및 판별분석을 사용한 논문은 각기 32개(8.23%), 3개(0.77%), 및 4개(1.03%)로 상당히 적었고, 제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을 사용한 논문은 6개(1.54%), 마지막으로 비모수적 분석을 사용한 논문은 14개(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 게재 논문 참고문헌 인용 분석 결과

학회지 게재논문의 국내외 참고문헌 인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총 238개의 논문들 중에서 국내 참고문헌을 제시한 논문은 228개였는데, 이 논문들에서 인용된 국내 참고문헌 수는 평균 11.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논문별 국내외 참고문헌 인용 현황

참고문헌 정보 유형	논문 수 <sup>1)</sup>	인용논문수 평균(SD)	인용논문수 범위
국내 참고문헌 인용	228	11.68개(10.48)	1~78개
논문-국내문헌 연도 차이 <sup>2)</sup>	228	5.96년(2.98)	-1 <sup>4)</sup> ~24년
외국 참고문헌 인용	237	28.27개(15.91)	2~96개
논문-외국문헌 연도 차이 <sup>3)</sup>	237	15.11년(5.66)	2~31년

- 1) 참고문헌 정보 유형 계산에 포함된 논문 수를 나타냄.
- 2), 3) 특정 논문 발간 연도에서 그 논문에 수록된 국내 또는 외국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간 연도를 뺀 연도 차이를 나타냄.
- 4) 2)의 계산에서 -1의 최저값이 나온 이유는 실제로는 1991년에 작성되어 그 해의 최신 국내 참고문헌을 인용하였으나, 그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의 발간연도가 1990년인 경우가 한 사례 있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게재된 특정 논문의 발간 연도에서 그 논문에 수록된 국내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행 연도를 뺀 ‘논문-국내문헌 연도 차이’를 계산한 결과는 평균 5.96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28개의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6년 정도 이전에 발표된 국내 참고문헌들을 인용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외국 참고문헌을 제시한 논문은 총 237였는데, 이 논문들에서 인용된 외국 참고문헌 수는 평균 28.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에 게재된 특정 논문의 발간 연도에서 그 논문에 수록된 외국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행 연도를 뺀 ‘논문-외국문헌 연도 차이’를 계산한 결과는 평균 15.11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37개의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이전에 발표된 외국 참고문헌들을 인용했음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수록된 총 238편의 논문들을 연구내용, 측정도구, 피험자, 통계분석 방법, 참고문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회지 출판경향, 논문의 작성 경향 등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학회지 논문들의 연구내용을 미국의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수록된 논문들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상담심리학의 연구동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회지 수록 논문들의 수는 2000년부터 연간 학회지 발간 회수가 2회 이상으로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양적 팽창이 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연간 4회씩 발간되기 시작한 2002년의

게재 논문 수는 57편으로, 1988년 창간호에 수록된 5편의 논문 수에 비하면 10배를 넘는 수치이다(2003년의 경우는 아직 연간 4회의 학회지 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1988년의 학회 정회원 수가 60명이었던 것에 반해(이혜성, 1996),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정회원 수 60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자면(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뉴스레터 12월호, 2002), 이 같은 논문 수의 증가는 학회 정회원 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4명의 정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학회의 학회지 게재논문 수가 연 57편인 것이 걱정할 것인지, 아니면 걱정 수보다 적거나 많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다른 분과학회, 예를 들어 임상심리학회의 정회원 수와 연간 학회지 게재 논문 수 등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과 관련해서는 성격특성 및 적응에 관한 연구가 전체 논문의 21.8%, 상담성과연구가 14.3%, 개관연구가 10.5%, 진로/적성연구가 10.1%로 비교적 높은 게재율을 보인 반면, 상담과정/성과 통합연구, 이론개발연구,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연구, 사례/조사연구,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등은 모두 5% 이하의 게재율을 나타내 연구내용별로 게재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JCP 논문 게재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학회지의 경우 성격/적응연구, 성과연구, 개관연구의 게재비율이 JCP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과정/성과 통합연구와 과정연구의 게재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구내용 유형의 JCP와의 비교분석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국내 상담연구자들이 상담과정연구 및 상담과정/성과 통합연구를 상당한 정도로 덜 게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두 연구 내용의 우리 학회지 논문 게재율은

13.8%인데 반해, JCP의 경우에는 38%로 24.2%라는 현격한 게재율 차이를 보였다. 이 두 유형의 연구들이 실제 진행되는 상담과정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과정 측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두 유형의 연구 수행 난이도는 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국내 연구자들이 이 두 유형의 연구가 상담심리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미국 연구자들만큼 인식은 하지만 연구 수행 난이도는 높고 연구 수행 편의성은 낮은 상담과정 관련 연구를 “기피”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격한 연구환경 격차를 감안한다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상담과정 자료를 수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료수집 환경에 처해 있는 국내 연구자들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자료수집 절차를 요하는 상담과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이런 연구들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비율 또한 낮아졌을 수 있다는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연구 편의성이 비교적 높은 성격/적응연구의 게재비율이 JCP에 비해 약 15% 가량 더 높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두 번째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자들에 비해 상담과정 관련 연구들의 중요성을 보다 덜 인식했거나, 보다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성과연구의 주된 물음은 “상담개입 또는 처치의 효과가 있는가?”이다. 반면에 상담과정연구의 주된 물음은 “상담진행과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이다(김수현, 1991). 이렇게 볼 때, 상담과정연구는 상담개입의 궁극적인 효과나 성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상담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즉, 상담효과와 원인을 상담과정에서 규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상담과정연구는 치료기제(therapeutic mechanism)에 관한 연구로 상담연구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상담과정 관련 논문들이 미국에 비해 현격히 덜 시도되고 따라서 덜 게재되는 이유가 국내 연구자들이 처한 상담연구 수행의 환경적 열악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국내 연구자들이 상담연구 본연의 과학적 목표, 즉 발생한 현상(상담성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 노력(상담과정분석)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학회지 게재 논문의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내 상담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에 관한 정보와 도구의 채점 및 점수해석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개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그 중에 1개 정도의 비율로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측정 속성 정보를 제시한 경우라도 내적 합치성 계수(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와 같은 간단한 신뢰도 정보만 제시한 경우가 55.7%에 달한 데 비해, 신뢰도, 요인정보, 그리고 타당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시한 경우는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도구의 채점 및 점수해석 방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구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만 제시한 채, 점수채점 방식과 점수해석 방식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논문 결과 부분에서 제시된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23.9%에 이르렀고, 이 두 가지 정보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가 33.1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구 혹은 척도를 사용한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그 결과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제시된 결과, 즉 도구 적용 결과 얻어진 점수의 의미를 독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회지 게재논문들은 평균적으로 465명 정도의 피험자를 사용하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3세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남녀 구성비는 각기 45.8%와 54.2%로 여성 피험자를 남성 피험자보다 다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 게재논문들은 피험자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피험자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제시된 201개의 논문들 중에서 45개의 논문들(22.4%)이 피험자의 남녀성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험자 평균연령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논문은 81개로 40.3%에 불과했다. 피험자 선발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한 논문은 51.2%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26%는 아예 아무런 선발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의 연령 형태는 대학생이 39.8%로 가장 많았고, 성인이 27.1%, 중고등학생이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지위 특성에 관한 분석은 우리 나라 상담연구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데, 상담기관 내담자, 정신과환자 등과 같이 상담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피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킨 경우는 전체의 13.9%에 불과한 반면, 각급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피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무려 5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연구에 상담의 주요 고객이자 대상인 내담자가 존재하지 않는 역

설적 결과로서 앞서 제시한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국내 상담연구자들이 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들이 학회지 게재논문들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예를 들어, t-검증, 변량분석(ANOVA), 다변량분석(MANOVA) 등의 변량분석계열의 통계분석 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44.2%였고, 상관분석이나 중다회귀분석 같은 회귀분석계열의 통계분석 방법이 사용된 경우는 40.6%에 이르러 이 두 분석방법이 전체의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집분석, 편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예: 공변량구조분석) 등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통계분석 기법이 적용된 논문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과 관련해서는 학회지 게재논문들이 평균적으로 국내참고문헌은 11.7개, 외국 참고문헌은 28.3개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 문헌에 대한 인용 의존도가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된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간 연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얻어졌는데, 국내 참고문헌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6년 지난 문헌을, 외국 참고문헌의 경우는 15.1년 지난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학회지 게재논문들은 국내 문헌보다 약 9년 정도 더 지난 외국 문헌을 두 배 이상 더 많이 인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1988년 창간호에 이어 15년간 발간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원 수 증가와 더불어 상당한 양적 팽창을 기하고 있지만, 연구내용 면에서는 상담심리학 본연의 연구주제들(예를 들어, 상담과정

과 관련한 주제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상담기관 내담자나 정신과환자 등과 같은 상담실제의 주요 대상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고, 측정도구나 피험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충실하게 제시해야 하며, 좀더 최신의 국내외 문헌들을 인용하여 연구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국내 상담연구자들은 연구주제나 방법을 선택할 때 연구 수행의 편의성이나 자료수집의 수월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는 듯하다. “의미있고 중요한” 연구보다는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선호 경향성이 국내 상담 연구자들 사이에 은연중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회지 편집자들은 국내 상담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상담심리학 연구들이 보다 많이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편집 방향과 방침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CP처럼 학회지 게재논문들을 몇 가지 내용 유형으로 구분하여 편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중요하지만 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주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외국 학술지들의 Special Section처럼 특별 편집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게재를 위해 제출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연구의 기초적인 사항들(예: 도구나 피험자에 관한 정보, 통계분석결과 제시 방법 등)이 충실하고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나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학회지 편집자들은 편집자 나름대로 제출된 논문들에 대한 피동적 심사 및 편집 관

행에서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상담연구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편집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연구자들은 연구자 나름대로 연구 수행의 편의성과 자료수집의 수월성에 필요 이상으로 지배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수현 (1991).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방법론. *현장연구방법론 각론*(한국심리학회 편, pp. 81-113). 서울: 성원사.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뉴스레터 12월호 (2002).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발간. <http://www.krcpa.or.kr>에서 2003. 9. 29. 인출.
- 이혜성 (1996).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한국심리학회 편, pp. 269-299). 서울: 교육과학사.
- 차재호, 염태호, 한규석 (1996).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한국심리학회 편, pp. 3-79). 서울: 교육과학사.
- Brown, F. G. (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 263-272.
- Buboltz, W. C. Jr.,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 496-503.
- Foreman, M. E. (1966). Publication trends in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 481-485.
- Goodstein, L. D. (1963). The institutional sources of articles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 94-95.
- Heesacker, M., Heppner, P. P., & Rogers, M. E. (1982). Classics and emerging classic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400-405.
- Hill, C. E., Nutt, E. A., & Jackson, S. (1994). Trends in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Samples, measures, researchers, and classic pub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64-377.
- Munley, P. H. (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05-310.
- Robinson, F. P. (1970). The growth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85-387.
- 원 고 접 수 일 : 2003.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6  
게 재 결 정 일 : 2003. 11. 28

K C I

##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1988 ~ 2003)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 analysis of the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KJCP) for a 15-year period(1988-2003) was conducted. A total of 238 articles were analyzed with regard to research contents, instruments, subjects,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and references.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the KJCP articl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JCP) articles. Several importa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al areas of research activity and publication in the KJCP were personality and adjustment, outcome, review, career/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sts and measures research. These five content categories accounted for 66.4% of the articles. Second, typical samples contained normally adapted middle, high, and college students without moderate or severe psychological symptoms or disorders. Third, informations of the subject selection proced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instruments were poorly presented in almost half of the articles. Forth, 85% of the articles used ANOVA-related or multiple regression-related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Fifth, the articles cited foreign references of 9-year older, two times more frequently than domestic references. The overall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articles of the KJCP need improvements with regard to research contents and writing and publication style of the article.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study for counseling researchers in Korea and editors of the KJCP were discussed.

*Key Words* : research trends of counseling psychology, content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